

환경부, 물위기 해결 논의...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 개최

환경과학원, 최신 유역관리 기술 발표와 향후 발전방안 논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유엔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기념해 3월 24일 중소기업창업박람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에 발맞춰 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 자연 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활용한 국내외 유역관리 현황, △2부 지능형 도시 물관리(Smart water city) 실현을 통한 물순환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자연기반해법의 활용성 평가 및 적용 확대방안'을, 미국 원 아키텍처 앤 어바니즘(One Architecture & Urbanism)의 마타야스 바오(Matthijs Bouw) 회장이 '국외 물관리 분야 자연기반해법 적용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위에이안 리우(Yuei-An Liou)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교수

가 '원격감지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수문 기상 극한 현상 및 물순환 평가'에 대해, △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이 '스마트워터시티 적용 사례 및 발전방향(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에 대해, △김홍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슬기로운 물환경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나은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량연구과장,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하여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영상회의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역관리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윤석열대통령, '서해수호55명 영웅'역대 최초로 한 명씩 호명(roll-call)

北 도발 맞서 대한민국 자유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 영원히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3.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묘역,故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깊은 위로와 진정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故 조천형 상사의 모친인 임현순 님(제2연평해전),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님(연평도 포격전), 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님(천안함 피격), 故 정종률 상사의 아들인 정주한 군(천안함 피격), 故 한주호 준위의 배우자인 김말순 님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이 함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장렬히 산화한 55명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에서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

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해수호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을 향해 깊은 위로와 감사를 여러 차례 전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서해를 묵묵히 수호한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

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아울러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하고, 윤 대통령이 현화·분향 시에도 배석했다. 또한 대규모 군 의장대 분열(육·해·공·해병대 130명)을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국가가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기념식 무대 우측에는 모형 환경에서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전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26기관총, 참수리 357호정과 첫 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와 부대기 및 함정 명패,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방사포탄 파편을 맞은 중화기 중

대 명판 등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 유가족 대표를 만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역할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오늘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감기인 줄 알았는데...”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결핵 검진 받으세요!

경북도는 24일 '제13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전 시군과 함께 결핵 예방과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이란 슬로건으로 결핵예방주간(3.18.~3.24.) 동안 도내 25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노인복지시설, 지역 변화가 등에서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전 도민 대상으로 2주간(3.18.~3.31.) 라디오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결핵 신환자율은 52.2명으로 전국(35.7명)보다 높지만, 결핵 신환자 수는 1368명으로 전년(1495명) 대비 8.5% 감소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경북도 전체 결핵 신환자의 65.1%가 어르신으로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25개 시군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찾아가는 결핵검진 계획을 수립해 매월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이동 검진 실시, 유소견자 추구 관리를 통해 결핵 고위험군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핵 환자 신고·복약 관리 △가족 접촉자관리 △집단시설(학교, 직장, 사회복지시설 등) 내 결핵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관리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 발견사업 △민간·공공 협력을 위한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력

배치 등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결핵균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고,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발열, 객담, 체중 감소 등으로 감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증상이 유사하며, 치료약 복용 후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되고 6개월 이상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결핵은 일반 감기 증상과 비슷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진이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2주 이상의 기침, 발열과 같은 의심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2023 3.24. (월) 13:00 - 18:00

2023 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 심포지엄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

- 기조연설: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
- 발표: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
- 토론: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
- 종합토론: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

UNESCO 세계유산, citaslow, 산소카페 청송군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청송의 맛'

청송의 자연은 순수합니다.
농부들은 그곳에 '땀과 정성'을 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청송사과,
태양과 바람이 키우는 신토불이 청송고추,
청송농산물의 새로운 다크호스, 청송자두...

산소카페 청송군이 빚어낸 '청송의 맛'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 “얼룩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단순 해프닝 아니다”

어린이대공원 탈출한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14시 50분경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14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펜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분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

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되어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으로 대처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 의원은 “이번 얼룩말 세로 탈출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과 웃음거리로 치부하면 결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동물권 보장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동물 고유의 서식지를 최대한 재현하는 생태 동물원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인간의 손길과 보호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동물에 한해 동물원을 운영하는 방식 등 발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2005년에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해 광진구 일대의 주택가와 음식점을 헤집고 다니는 소동이 발생하여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최광수/기자

부산 동구의회, 노르웨이 대사관 방문하여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호소 서한문 전달 요청

부산 동구의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외홍보단은 23일 노르웨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김필우 주 노르웨이 대사과 면담했고 2030월드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동구의회 명의의 서한문을 총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김필우 주 노르웨이 대사는 “노르웨이는 부산, 울산 등에 있는 기업들과 경제적 협상이 잘 되어 있어 이런 기업들이 한국을 지원해 줄 거라 기대한다.”며 “끝까지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라. 대사관에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등에 엑스포 유치지 호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녁에는 주 노르웨이 한인회 부회장과 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며 현지 교민들의 엑스포 유

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을 협조 요청했다.

이상욱 단장은 “부산 동구의회와 작은 힘이라도 노르웨이 현지에 전

달하여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선정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중진/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공공체육시설 활짝연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체육시설 개방 실태 및 적극 개방을 위한 지원방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 현황 및 대책,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백성욱 회장,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안을섭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체육시설 고재곤 심의위원,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김현덕 부회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윤경욱 기획총무팀장, 경기도체육회 최종열 스포츠진흥부장, 경기도 체육진흥과 정현석 체육지원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대책으로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역학부모단체 등 자원봉사 위원회 설립, 학교시설의 복합화,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앱 개발을 통한 리그활성화, 스포츠 공간 플랫폼과 업무협약 등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로 나선 안을섭 교수는 “과거의 공공체육시설의 정책에서 벗어나 제도권 내 시스템 개방, 관리주체 전문화, 오후5시 주민개방, 관리자 및 시설보수 지원, 보험연계 안전시스템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곤 심의위원은 “문제인 정부 시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공공개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급속한 생활체육인들의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말하며, 공공체육시설에 개방에 설계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김현덕 부회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의 개방과 더불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체육센터가 건립된다면, 장애인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현석 체육지원팀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교육청과 도가 협력하여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에 개방에 있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체육 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시설, 운영비는 경기도가 직접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책임유무와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시흥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29개 안건 처리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24일 제 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으며 지적사항들에 대한 재발 방지

당부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며 대표 위원에 오인열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7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의 개회에 앞서 이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지하 스마트팜을 이용한 반지하 활용 대책 마련 및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시 집행부에 제안하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적극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

순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중요성과 집행부의 실제적 방향'에 대해, 성훈창 의원이 우리 시 공공택지개발사업 관련 시 집행부와 LH, 국토부, 국회에 개선 및 개정을 요구하고, 오인열 의원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송미희 의장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영주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대표위원 우충무 의원 등 5명, 4월 6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 예정

영주시의회는 지난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 24일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 우충무 의원(무소속, 다선거구(가흥1·2동))과 김철진 교수, 백종규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6일(목)부터 4월 25일(화)까지 20일간 영주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하고 영주시장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은 “결산

검사는 결산내용의 신빙성과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에 함께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과 합심하여 재정운영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결산 검사가 시정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의 향후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오는 6월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의결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충남도의회,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 지원 구체적 해법 모색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결성한 연구모임 운영을 연장하고, 심층적인 해법 모색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대표 전익현)은 24일 충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의 문제 유형에 따른 개입 및 지도방법, 부모교육 등에 대한 매뉴얼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한다.

연구모임 대표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간사는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정준모 실장이 맡았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이 참여하며, 남서울대학교 김은실 교수, 광주교육대학교 손현동 교수, 서천교육지원청 김병관 교육장이 연구활동에 힘을 보탠다.



전익현 의원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게임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학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지난해 6개월의 연구 활동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1년간 연

구활동 연장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구활동은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법을 도출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산시 CCTV 관제 요원 현장 교육... 오색시장 화재·범죄 예방

오산시는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에 근무하는 CCTV 관제요원 16명의 관제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상반기 CCTV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와 방범용 CCTV가 연결됨으로써 오색시장 내에 설치된 CCTV 현장을 방문해 요원들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색시장 고객 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고 사건·사고와

화재가 취약한 곳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관제로 화재 예방 및 범죄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오색시장 내 설치된 시스템과 현장 CCTV 설치 장소를 확인하여 지형 속도와 신속한 조치 및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했다.

오산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는 올해 600여 건의 경찰과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수많은 사건 해결에 일조

하고 있다. 차량털이범 등 범인 검거 공로로 오산경찰서로부터 3개의 표창장을 받았을 정도로 이미 관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은 “오산경찰서 및 오산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올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한 40여 대의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고 60여 대의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팔달구 소재 전통시장과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원일자리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현장 방문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먼저 위원회는 팔달구에 위치한 지동?못골?마나리광?남문패션1번가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각 시장 상인회장 9명과 간담을 나누며 시장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와 수원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유준숙 위원장은 “수원시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진행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장항지구는 경제자유구역 핵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장항지구 등이 고양시가 자족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24일 장항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고양시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이지만, 그동안 국가의 규제 강화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면서 “앞으로 JDS지구 일대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고양시는 기업도시, 경제도시, 일자리도시라는 글로벌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DS지구는 고양시 장항, 대화, 송산·송포동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명칭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 고양방송영상밸리, 장항지구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며, 개발제한구역(GB)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 시장은 이에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내세웠고, 취임 후 1호 결재가 ‘경제자유구역 TF팀’ 출범이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올해 용역을 거쳐 다음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같은 해 4월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핵심 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의 핵심정책과 관련해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 도약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우선 “고양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한 1992년에 26만 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현재 108만 명으로 4배가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늘어난 인구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해 소비도시, 위성도시의 역할에 정체를 겪고 있다”고 도시기능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고양시는 과밀억제·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 규제로 3중 규제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자세 등이 타 지역보다 3배”라면서 “이로 인해 기업이 들어오기 힘들고, 청년들이 서울 등지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등 고양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으

로 지정되면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컬러,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8기 고양시는 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K-메타컬처플랫폼,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마이스 육성,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다.

즉, 고양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직주근접(職住近接)을 갖춘 교통문제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장항지구 주변으로는 GTX-A노선, 대곡소사선, 인천2호선 고양연장 등 다양한 교통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고속도로 사업이 현재 민자적격심사에 통과됐지만, 서울 양재부터 고양 현천JC까지만 검토돼, 자유로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등 부족한 교통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통합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시장 현안 중 백석동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요교통 시정사 건립비용은 2,950억 원이지만, 원자재 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 원이 훨씬 초과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절반 32.8%인 고양시에 지속

안양시, 봄꽃 가득한 관악수목원 23일간 전면 개방

-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시민들 요청에 개방기간 대폭 확대
- 최대호 안양시장, “쾌적하게 봄꽃을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게 만전” 당부해



안양시는 지난 24일, 개화기를 맞아 관내 비개방 학교 수목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23일간 전면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전면 개방을 위해 다년간의 적극적 노력 끝에 지난해 서울대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세부 논의를 통해 지난해

4월에 하루, 10월에 열흘간 총 2차례 시민들에게 수목원을 개방했다.

당시 수목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들은 수목원 개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한편 짧은 기간에 아쉬움을 표하며 개방 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서울대와의 세부 실무협의를 거쳐 개방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개방 기념식은 4월 15일 오후 2시 수

목원 내 어울림마당(임간교실)에서 진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수목원 전면 시범 개방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명칭 변경과 추후 전면 개방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목원을 찾는 안양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봄꽃을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개방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 등 행정사법 적용, 민원실 인가 접수·시행 물리날곳 없어

민원처리법 적용, 행정사법 개별법 2조1항 5호 명확히 규정 법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행태 비난 피할 수 없어‘직무유기’

한행정사회 회원들이 경기도역 8곳 지자체를 상대로 ‘인·허가 관련 불법 민원서류 신청 건 감사요청’에 대해 단 1곳도 명확한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의 개별을 적용하고 있는 행정사법(행정사 업무 위임 사항)2조1항 5조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대리 업무가 명확히 명시된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법률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

기사를 종합하면, 경기도 이천시는 행정사법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행정사를 통해 시행 △민원인 직접 접수 △민원인 등기 접수 등을 꼽아 진행하고 있다.

안성시의 민원부서는 현재 뚜렷한 방침을 정해 놓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안성행정사회, 토목설계협회는 시가 주관하는 구제책 협의를 조만간 이뤄

질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는 인·허가 민원실 접수시 위 임장을 첨부, 제출하고 있지만 본인(신분증)확인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려처분, 행정사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평택시도 지정인의 감사요청·인·허가 불법 민원서류 신청건 감사요청’에서 2019~2022년까지 18개 항목 2만2259건의 항목만 통보해 왔으며,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정해놓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민원부서와 개발행위 부서가 각각 다른 해석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민원부서는 민원처리법만을 적용, 민원인이 접수하고 있는 서류를 행정사법을 미적용해 반려 처리를 못하고 있는 반면, 개발허가 부서는 행정사법을 적용해 위임장을

첨부한 인·허가 서류를 보완 등 반려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한행정사가 경기도역 8곳을 상대로 ‘인·허가 불법 민원서류 신청건 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단 1곳도 감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정일할 대한행정사회 화성지회장은 “행정사법에 명확히 적용돼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공무원)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행동”이라며 “민원처리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이행해야 하며, 관청처럼 지속적으로 할 경우 더 강도 높은 행동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행정사 A씨는 “법은 지키라고 정한 법이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앞으로 조속한 시행 여부를 지켜 본 뒤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안산시“시화호 적조 유해성 無”...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 대응

최근 시화호 상류 기수역에 적조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안산시는 지난 20일 시화호 상류 장전보, 갈대습지 생태다리 부근에 붉은색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중분류를 의뢰한 결과, 크립토모나스 우점종으로 인한 적조 현상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크립토모나스(cryptomonas:

은편모조류)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인 기수역에 주로 나타나는 플랑크톤이다. 피코에리트린(phycoerythrin)이라는 붉은 색소를 갖고 있어 이 생물이 번식할 경우 물빛을 붉게 보이게 하나 다행히 무해성 적조생물로 인체나 어패류 등 수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반월천, 동화천 및 갈대습지, 시화호 상류 등의 도구를 확인한 결과, 상류로부터 개발현장 토사 등 오염원이 유입된 흔적은 발견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해성이 없어 시민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함께 공동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유해성이 없어 심미적인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무해성을 알리고 현상이 소멸 될 때까지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구미시, 2050 탄소중립! 날개를 달다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 탄소중립지원센터로 경운대학교 지정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 22(수)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25.)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구미시는 발 빠르게 국비 신청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공고를 통해 신청 기관을 접수받아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운대학교를 지정했다.

전담인력 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중 개소해 운영될 "구미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시행, 구미 맞춤형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책무가 강화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구미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으로 지역 중심 탄소중립 정책에 날개를 달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진/기자

안동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스페인 세비야 총회 참가

IAEC 세비야 총회에서 112개 회원도시에 탈춤축제 공식 초청



권기창 안동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총회 참가단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 문화센터(CaixaForum Sevilla)에서 열린 2023년 IAEC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중·증문화에 대항하는 교육도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비야 총회에는 IAEC 의장이자 바르셀로나 시장인 아다 콜라우(스페인)를 비롯한 15개국 112개 회원도시의 시장 및 교육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IAEC 총회에서는 정례회의와 상임이사도시회의가 열려 지난해 활동 경과 사항과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회원 도시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도시의 역할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평생교육 현장 탐방과 교육 관련 전시회 그리고 회원 도시 간 국제교류 및 평생교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총회에서 올 10월에 개최되는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홍보하고, 각 도시 대표단들을 공식 초청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전 세계 교육도시와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안동시의 교육정책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특히, 지난해 10월 안동에서 개최된 IAEC 세계총회의 성과를 회원 도시와 나누며, 국제교육도시, 세계유산 대표광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안동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 참가단은 총회 참가에 앞서 20일 IAEC 사무국이 있는 바르셀로나 시청을 방문해 '제16회 안동 IAEC 세계총회'를 개최한 인연을 이어 바르셀로나시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향후 두 도시 간 국제교육도시연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교육도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Educating City)은 1994년 창설돼 현재 35개국 500개 도시가 가입된 교육 관련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조직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윤근수/기자

사이소'에서 『daily사과 & 참품한우봄나들이』하세요!!

- 사이소-경북농협 협업 강화, 농축산물 판로확대 모색
-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사과, 한우 20%할인 쿠폰 증정 행사 개최

경북도는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daily(데일리)' 사과와 광역 한우 브랜드 '참품한우' 축산물 할인행사를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경북 농축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농협 후원으로 진행되며 경북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집체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사이소에 방문하면 daily사과와 참품한우를 최대 2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농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사이소를 통해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북 농축산물 공식 온

라인 판매 플랫폼인 사이소와 협업판매를 더욱 확대해 경북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이소에서는 봄소풍 기획전, 신규회원 할인쿠폰 발급, 버스타고 경북관광 등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영비 상승, 농축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이소가 농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공공 쇼핑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세종사무소 개소로 국비 확보 베이스캠프 구축

- 대외협력관과 상주 직원의 협업으로 대외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김광열 영덕군수, "국비 확보 영덕군 미래와 지속 성장의 절대적 가치"

영덕군이 정부 부처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영덕군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

지난 23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사무소는 정부 부처와의 협조적인 체계를 구축해 국가지원예산을 확보하려는 영덕군의 복안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대외협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세종사무소는 영덕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및 출향 인사와의 협조체계 강화, 정부 부처 움직임과 각종 공모사업 파악 등 국가에산활동 지원과 군정 홍보에도 힘쓰게 된다.

최근 영덕군은 재정자립도 향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김광열 영덕군수의 주도 아래 내부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쏟았다.

이에 국가사업에 대한 이해와 국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20일 2차례 개최해 2024년 국·도비 지원사업 3,606억원을 건의하고 347억원의 공모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또한 지난달 8일에는 행정, 문화관광, 기업, 농수산업, 통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외협력관을 영입·위촉했으며, 앞으로 세종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국비 확보는 영덕군의 미래와 지속 성장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이번 세종사무소 개소는 이를 실현할 마중물

이 될 것"이라며, "세종사무소를 통해 정부 부처 공직자와 출향 인사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영덕군의 행정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비 확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김광열 영덕군수 취임 이래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포함 1,0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장문희/기자

서울 성수동에 '남해로 가게'팝업스토어 열린다

- 남해관광문화재단, 농·수산물 가공품 50여점 전시·판매
- '남해 다랭이마을, 다랭이주제...유채꽃 테마 연출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LCDC에서 '남해 다랭이 마을, 다랭이'를 주제로 오는 31일(금)부터 4월 9일(일)까지 10일간 팝업스토어 '남해로가게'를 운영한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관광기념품과 농·수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입점 신청을 받았으며, 남해를 대표하는 50여 가지 상품이 전시·판매 될 예정이다.

'남해로가게'는 서울 성수동에서 오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일 운영되며, 방문객과 구매 고객 대상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행사는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남해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기념품과 농수산물을 전시·판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봄맞이 관광객을 겨냥해 유채꽃을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고사리밭길 등 남해의 꽃과 식물 등 생태관광자원을 주제로 팝업스토어를 준비하겠다"며 "여행하기 좋은 봄날 꽃섬 남해로 오셔서 행복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해군을 홍보하고 나아가 잠재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대도시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남해표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을 팔 수 있는 남해로가게 팝업스토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유준/기자

상주자전거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선정

2002년도 개관 이래 처음으로 유물 정보 등록 사업에 선정



상주자전거박물관(관장 윤호필)은 2023년 공·사립 대학 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에 선정되었다.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은 박물관 소장 유물의 DB 구축과 대국민 공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사업이다.

전국 공·사립 대학박물관 713개관 중 최종적으로 30개관이 선정되었는데 경북지역에는 총 5개 박물관이 선

정되었다. 그 중 공립 박물관으로는 상주자전거박물관과 상주박물관이 유일하다.

상주자전거박물관은 2002년 개관한 이래 처음으로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다. 상주자전거박물관은 이 사업의 목적이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물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실생활용으로만 인식되었던 자전거를 유물로서 가치

를 격상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윤호필 상주자전거박물관장은 "상주자전거박물관은 전국 유일의 자전거박물관인 만큼 박물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DB화 사업을 통해 박물관 소장품을 널리 알리는 것과 이를 활용한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서울에서 만나는 **경남 남해군**

POP-UP STORE

남해로 가게

매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연무장 17길 10 LCDC SEOUL 1F DDMYY

다랭이마을 편 "다랭이"

03.31-04.09

청송군, 관광서비스 환경 개선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윤경희 청송군수, "시설환경개선 쾌적 환경 조성, 경쟁력 강화"

청송군은 관광청송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24일 ~ 31일까지이며, 안내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 관광객 대상 음식점소와 관광숙박업체가 대상이다. 음식점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시설로 개선이 필수 항목이다. 폐쇄형 개방형 주방 개선, 화장실 환경개선, 간판 및 메뉴판 개선 등, 지원한도는 업소 당 최대 2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40%이상 자부담이다. 또한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실내안내판, 홍보물 비치, 침구류, 벽지, 조명 사업에 업소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 기준 40%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신청은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31일까지 청송군청 관광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



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령취약층 등 홍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상 영업을 대상으로 개별 우편발송을 하고 있다."며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계가 시설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플리마켓 '별별마당'

배현준 센터장, "도시재생사업 취지를 살려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Advertisement for '별별마당' (Bullye Bulye Market) featuring various food items, dates (March 24th and April 21s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enter.

통영시, 제18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 교통통제 '숫폼'으로 주민 홍보에 최선을
- 간부 공무원과 젊은 직원들 간의 색다른 소통의 시간 가져

4년 만에 개최하는 '제18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시민 걸로 찾아온다. 봉평동행정복지센터는 '제18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기간동안 많은 상춘객과 차량이 축제장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내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숫폼(Short-form) 플랫폼과 교통정리춤에 착안하여 통영시 홍보영상 미디어소통팀과의 협업으로 짧고 강렬한 교통통제 홍보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적극 앞장선 백철기 동장과 MZ세대 직원 4명은 교통통제가 실시되는 봉숫골 아름다운 거리 일원에서 틈틈이 연습해온 춤 실력과 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영상에 참여한 봉평동 직원들은 "처음엔 조금 부끄러웠지만, 동료들과 연습한 시간들과 색다른 도전 자

제가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교통통제 사항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된다면 더욱이 뿌듯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백철기 봉평동장은 "개인적으로 젊은 세대의 직원들과 함께 춤추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공격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안내사항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통통제가 실시 되는 만큼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는 대중교통과 임시주차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18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교통통제 홍보영상은 통영시 공식 유튜브 쇼츠(https://www.youtube.com/shorts/QF5xh0N_SNU)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윤준기자

Advertisement for '제18회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including a traffic control map and schedule details.

안동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생명과 재산 보호한 유공자 11명 표창
- 이상학 부시장,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재난 사고 예방 대응" 당부



안동시는 지난 23일(목), 안동시청 대동관(낙동홀)에서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 김경도 안동시의회 부의장, 김대진·김대일·권관택 경북도의회 의원 및 안동시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들과 최구한 안동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학 부시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써온 유공자 11명에게 안동시장 표창장을 전수했다. 또한, 안동의용소방대연합회는 사랑의 쌀 22포대를 유은복지재단(안동시 남선면 지골길 18)에 기부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규 취임한 구담남성의용소방대 윤창식 대장과 도산서부남성의용소방대의 김보영 대장이 단상에 올라 의용소방대 깃발을 높이 흔들며 지역사회 봉사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4년 만에 민방위 대면 교육 재개"

이번 교육 통해 북한 도발 등 현 민감한 동북아 정세에 대비 태세 갖춰

경주시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사이버로 진행해오던 민방위 교육을 4년 만에 대면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민방위대장은 교육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직장민방위대 통솔과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시 주관으로 열리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해 왔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업무 지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민방위 발전 방안 이론 교육,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지진·지진해일 대비 행동 요령 등이다. 대상자는 만20세(2003년생)부터 만40세(1983년생)까지 현역대상자 및 예비군 등을 제외한 남성이다. 1~2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 3~4년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북한 도발 등 현 민감한 동북아 정세에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먼저 1~2년차 대면교육은 3월 27일부터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실시하며, 원거리 지역대원을 위해 안강읍·외동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을 비롯한 양남면·문주대왕면 복지회관에서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윤태용기자



경주시 거주 중년 타주소재인 대원도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성을 더했다. 또한 3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는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경주시 김철우 안전정책과장은 "4년 만에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부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민방위대원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경북지역 기마인물상 경주엑스포 홍보대사 되다

- 24일 경북지역 내 기마인물상서 엑스포 홍보안내판 제막식 가져
- 기마인물상 배경으로 인증샷 찍어오면 공원 입장료 할인 제공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지난 24일, 경북지역 내 기마인물상 앞에서 경주엑스포대공원 홍보안내판 제막식을 가져, 서울 경북지역 내에 설치된 신라시대 기마인물형토기 석상이 경주엑스포대공원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날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를 비롯 직원들과 김장실 한국관광공사사업장과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사업장, 류철균 경북연구원장(기마인물형토기를 주제로 한 3D 애니메이션 '도우대장차차(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7' 주제영상)'의 작가), 최원석 서울시홍보기획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리어예술단 이다현 대표 사회로 제막식 후 류희림 대표가 내빈들에게 기마인물형 토기의 출토 배경과 함께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류희림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에 경주엑스포대공원과 경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거점 장소를 선정해 시민들에게 경주를 더 알리고자 하는 목표와 행사를 더 해 됐다"고 말했다. 새롭게 설치된 홍보판은 기마인물



형토기 석상의 하단부 4면에 설치됐으며, 기마인물형토기에 대한 설명과 경주엑스포대공원 안내와 사진, 기마인물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오면 입장료를 할인해 드린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막식에 앞서 경주엑스포대공원은 경북지역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상호교류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경북지역 승강장에 조성된 기마인물 형토기 모형상 두 점의 안내판 부착 및 관리를 위한 제반 환경 제공 ▲모형상 두 점의 안내판 부착 및 유지

보수 ▲상호 홍보 및 이벤트 추진 등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력 ▲모형상의 인증샷을 찍은 지하철 이용 시민 및 "공사" 직원에 대한 경주엑스포대공원 이용료 할인 등이다. 한편, 경북지역 내에는 주인과 시종상(像)이 한 쌍인 국보 제91호 기마인물형토기의 모형 석상이 있다. 지난 1985년 경북지역 준공 당시 역 내에 설치됐으며 누구의 작품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말을 탄 인물과 묘사한 한 쌍의 석상은 1924년 경주 금명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인공은 호화로운 관모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 시종상은 상의를 입지 않은 채로 상투를 감아 맨 모습이다. 기마인물형토기는 인물과 마구류를 투박하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당시 복식과 마구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토기의 실제 크기는 높이 30cm, 길이 27cm, 너비 10cm 가량이며, 용도는 제례용 주전자로 추정된다. 윤태용기자

울릉군, 관광지 근로자 대상 친절·안전교육 진행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는 23일과 24일 오후 15시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대비하여 여행객을 일선에서 맞이하는 관광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및 환대 서비스교육과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한 초기 대응 방법은 물론 심폐소생술(CPR) 및 소방안전, 화재발생 대처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근로자들이 기존에 숙지하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익히고 직접 실습 체험해 봄으로써 고객 응대능력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기

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관광지 근로자들의 고객응대능력 향상과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꾸준히 진행하고 철저한 시설물점검으로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주요 관광지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울릉도를 찾는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 요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와 세심한 안내를 주문하면서 깨끗한 울릉을 친절하고 친절하게 맞을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중, 조강재/기자

새로운 변화의 주역, 경북여성리더 새출발!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 및 시군 회장 이취임식 개최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도내 여성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여성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 11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전임 회장들은 여성단체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철우 도지사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축사를 통해 “태풍·한파·노봉사활동 등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앞장서 수고가 많으셨다. 경북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임 회장에게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변화의 주역은 바로 여성 지도자!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애 경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임하는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



고, 회장 재임기간 동안 경북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준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취임식에 이어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시군여성단체협의회 간의 정책발전 방향과 2023년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2023년 주요사업으로 경북여성리더 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과 양성평등네트워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경북의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1980년에 창립된 이후 여성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23개 도단위 회원(기능)단체와 23개 시군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북 최대의 여성단체협의회로 27만명의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50% 감면

- 시,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약체결, 인구 유입에 기여 전망
- 민·관 협력으로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 지원

경북 영주시는 지난 24일, 최근 영주·봉화지역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세대가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하는 민·관 협력으로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번 민·관 협력이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과 전입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주를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시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이나, 학생, 군인 등 일시이주자와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토목설계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연평균 주택 및 창고 인허가 신청 건수는 약 60건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억 2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업이 영주시 인구 증가와 전입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귀농·귀촌인 주택 등 설계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봉화지역건축사협회(☎054-636-9747)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주제로



표 김윤화)이 서해수호 55용사를 낚고 기리고 시민의 안위와 민생안정을 기리는 승천무를 펼쳤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서해수호 55용사와 참전 장병 한분 한분이 보여준 용기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이라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시민 모두가 서해수호 영웅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김성학 부시장은 “조국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킨 서해 수호자 모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호국의 별”이라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굳건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일상회복으로 되찾은 봄! 2023년 '함께 걷자, 대구야!' 걷기챌린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장이 마련된다.

대구시와 시민건강놀이터는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을 통해 시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독려하고자 4월 1일부터 한 달간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이용한 '건강을 채우다. 1일 7,500보' 함께 걷자, 대구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참가신청은 3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워크온 앱에 접속해 설치 및 가입 후, 앱 하단 챌린지 탭의 해당 이벤트를 선택하여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된다.

이번 걷기 행사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4월 한 달 동안 목표 걸음 수 15만 보(1일 7,500보 인제) 걷기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일상생활 속 걷기 운동의 실천을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지금까지 21,035명의 대구 시민이 참여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는 모든 사망 위험 감소 및 비만 예방을 통한 각종 만성질환 발생위험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울증의 위험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여 정신건강 증진 및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다.

강연숙 대구시 건강증진과장은 “따뜻한 봄날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생활화도 많은 시민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공무원 대상 혁신 아이디어뱅크 운영

손병복 울진군수, “직원들의 참신한 연구 결과 균형 발전의 밑거름” 기대



울진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뱅크(균형발전연구회)를 운영한다.

공무원 대상 혁신 아이디어뱅크(균형발전 연구회)는 공무원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고 창의적인 제안과 새로운 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동아리 모임으로, 부서·직렬·직급 제한 없이 자유롭게 회원을 모집·구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혁신 아이디어뱅크는 지정과제 4개 ▲기후변화, 고령화에 따른 농·수산·임업 대전환 ▲맑은 공기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 가치 창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 지속 가능한 울진형 일자리 창출 등과 자율과제 중 한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하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공무원 대상 연구회가 다시 운영되어 직원들의 참신한 연구 결과가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회 운영과정이 회원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대구 북구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대구 북구청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예비스쿨로 「청년 로컬 라이프스타일 스쿨, 로컬리지(로컬+컬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로컬 라이프스타일 스쿨, 로컬리지」사업은 청년들이 지역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기획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 후 청년 주도하 창의적인 로컬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해와 공감, 제안과 공유, 현장학습 3개의 큰 틀 안에서 단계별로 추진되며 현재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강연에 참여한다.

첫번째 스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해와 공감' 단계는 공통, 특화, 기획 3개 과정으로 구성되고 공통과정은 로컬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기본 이해 과정을 배우게 된다. 특화과정으로 타

지역의 구체적인 경험사재를 가진 강사들로부터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토론을 한 후 기획과정에서 팀빌딩, 디자인 씽킹 등을 활용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다.

두번째 스템 '제안과 공유' 단계에서는 제안대회를 운영하여 지역에서의 삶의 방식, 아이디어 제안으로 가능성을 확인한다.

세번째 스템 '현장학습' 단계에서는 제안대회 수상팀 5팀에게 총300만원 상당의 필드트립 패키지를 지원하며 로컬리지 강사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이해와 공감, 제안과 공유, 현장학습 3개의 큰 틀 안에서 단계별로 추진되며 현재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강연에 참여한다.

첫번째 스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해와 공감' 단계는 공통, 특화, 기획 3개 과정으로 구성되고 공통과정은 로컬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기본 이해 과정을 배우게 된다. 특화과정으로 타



및 체험과정은 대구 북구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북구 청년들의 지역 내 다양하고 혁신적인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주도로 지역의 신산업 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참가자 모집은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5명으로 대구 북구에서 활동 또는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청년 로컬 라이프스타일 스쿨, 로컬리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daegu.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강원도내 수출기업 UN·해외조달 진출 컨퍼런스 성공리에 마쳐

UN 등 조달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소개 등으로 참석 기업들에게 큰 호응

강원도가 미개척 시장 진출로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확대를 견인하고자 개최한 '강원도 수출기업 UN·해외조달 진출 컨퍼런스'가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자민진흥원에서 수출 유관기관과 기업들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부제를 달고 우간다 공공서비스부 장관 특사, 나이지리아 보건부 국제협력국장 등 아프리카 정부 관계자와 UN 케냐 상주조정관, 유엔난민기구 민간파트너십 책임자, 유엔해비타트 나이지리아 청년프로그램 책임자를 초청하여, 도내기업들에게 UN 산하기구·정부조달에 대한 이해 및 진출 방안을 소개하고 제품별 맞춤형 진출 성공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도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초 50명 참석규모에 수출 유관기관, 기업 등 80명 참석하여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다.

이외 신속한 아프리카 정부조달 진출을 위하여 최기용 경제국장 주재로 개최한 '아프리카 정부조달 진출 파트너링 미팅'에서는 도내 바이오·의료기기·에너지 기업들이 참석하여 우



간다·나이지리아 정부관계자와의 1:1 대면 미팅을 통해 조달 파트너십 협력관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UN·아프리카 정부 조달 관계자 대상 도내 우수 혁신기업 홍보색션을 통해 도내기업들이 신속하게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동으로 도내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간다 공공서비스부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밀턴 캄부라 장관 특사

는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바이오, 의료기기, ICT 등 산업별 우수한 기술을 가진 강원도 기업들과의 협력이 크게 기대된다"며 "하반기 김진태 도지사의 우간다 방문을 통해 강원도-아프리카 정부 조달사업의 포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며 공식 초청했다.

3.21~22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UN 및 아프리카 정부 조달관계자는 컨퍼런스 개최 다음날 도내 혁신기업들을 방문, 생산시설과 제품을 참관

한 후 도내제품의 빠른 수입과 조달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 광영준 국제통상과장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은 강원도가 기술 대표적 미래산업인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UN·아프리카 정부조달 방문단이 도내 의료기기·바이오·ICT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협력을 요청한 만큼 체계적인 접근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원주시, 언제나 안전한 원주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원주시는 시민 안전의식 전파를 위해 캠페인과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문화의거리에서 시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시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8일과 29일에는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도 개최한다.

우선, 원주시와 안전보안관 30여 명이 격월 1회씩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한 시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인다.

안전수칙 팸플릿 등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시민안전보험 등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5회 실시됐다.

교통사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시민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노인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보안관 등 안전활동가,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참석자에게는 신호봉 등 교통사고 예방용품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 감수성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백운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가정 내 생활안전을 테마로 5세~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작년만큼 올해도 호응도가 높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13개소 3,8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방문 안전교육 ▲안전교육 자료 제작 배부(워크북 및 일기장) ▲안전 문화 홍보영상 제작 등 각종 안전 문화 시책을 추진하여 안전의식 전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원장수 원주시장은 "언제나 안전한 원주 구현을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전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공연·캠페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동해시, 체험·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주력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최근 경기·대구지역 여행객자를 초청, 동해시의 매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체험·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지역 여행사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초청 홍보 여행을 실시했으며,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대구지역 여행사 관계자 35명을 초청해 추암해변과 연필뮤지엄, 무릉별유천지, 무릉건강숲, 도재비플스카이벨리, 천곡향금박쥐동굴 등을 둘러봤다.

이번 홍보 여행을 통해 경기 및 대구지역의 여행 관계자에게 동해시의 관광 매력을 알리고, 지역 여행업체

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카이사이클, 오프로드 루지, 스카이글라이더 등 동해시의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무릉건강숲의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동해시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규인 동해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이색 여행상품 개발을 통해 시의 주요 관광시장인 수도권(방문객비율 38%)의 관광객 증가와 대구지역 관광 수요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태백시, 「탄광유산 이동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태백시는 지난 24일 울산에서 「탄광유산 이동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탄광유산 이동전시 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말경 탄광의 역사를 주제로 한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주요 탄광도시였던 강원 남부권 출신 도민들로 구성된 울산강원도민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 총 2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위촉식에는 이옥자 울산강원도민회장, 김병호 추진위원장, 황종석 고문 및 위원 그리고 이상호 태백시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위촉식은 이상호 태백시장의 울산 방문을 환영하는 울산강원도민회의 환영 꽃다발 증정을 시작으로 위원 소개, 위원별 위촉식 수여, 성공적 전시회 개최를 위한 토의 후 참석자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탄광유산 이동전시회는 "탄광유산

에 꽃을 피우다(검은황금 기록사진전)"라는 주제로 작년 8월 울산에서 개최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전시회로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도 출향민에게는 그리움 가득한 향수를 일깨우고, 일반인에게는 탄광유산(사진, 유물)을 통해 탄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탄광유산 울산 이동전시회는 오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울산 박물관에서 개최되며 사진 및 물품 등 약 2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울산강원도민회의 위원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초석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해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



시고 위원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행동으로 참여해서서 고향의 향수도 함께

느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나 주 시

고향사랑기부제





제7대 영양군귀농협회 회장 취임식

영양군 귀농협회는 지난 20일 (월)14시, 영양군청 3층대회의실에서 박준로 영양부군수, 김석현 군의회의장 영양군의원, 박홍열도의원 등 주요 내빈들과 영양군 귀농협회 100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영양군 귀농협회 회장 취임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비면 귀농협회지부장 김성복님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취임사, 축사, 임명장 수여, 회장단 인사, 폐회순으로 진행됐다.

제7대 회장 귀농인협회 최봉식회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이 귀농협회 회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회원간 단합과 봉사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가지면서 운명처럼 선택한 이곳 영양군지역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영양의 귀농귀촌인이 오로지 영양사람 영양군민으로 하나가 되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때면서,

또한, "앞으로 귀농협회는 회원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은 물론 도시민 유치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군 지방소멸 대응 추진단 및 인구증가 정책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므로써 영양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로 영양부군수는 축사에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귀농협회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운을 댄 뒤, "향후 귀농협회가 영양군민의 한 일원으로써 영양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귀농협회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따라 많은 외지분들이 영양으로 오고 싶어 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한 선도적인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7대 영양군 귀농협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 후 사회자의 폐회를 끝으로 귀농협회 회장 취임식을 마쳤다.

취재진은 행사간 신임 제7대 최봉식 회장이 말한대로 가장 소중한 덕목이 영양군으로 귀농하였으면,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동화돼, 지역민과 호흡하고 지역사회의 군정이 펼쳐는 정책에 적극 호응해 줘야 한다는 말에 큰 공감을 느낄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은 귀농인들 중 일부 소수인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모습이 눈에 띄어 보기가 썩 아름답지 않았는데, 이번 취임하는 최회장의 취임사에서 향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소수 귀농인원들에 대해 과감하게 군정 업무에 협조하라는 경중의 목소리가 신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영양군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큰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7대 영양군귀농협회 회장 취임식 영양군 귀농협회는 지난 20일 (월)14시, 영양군청 3층대회의실에서 박준로 영양부군수, 김석현 군의회의장 영양군의원, 박홍열도의원 등 주요 내빈들과 영

양군 귀농협회 100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영양군 귀농협회 회장 취임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비면 귀농협회지부장 김성복님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취임사, 축사, 임명장 수여, 회장단 인사, 폐회순으로 진행됐다.

제7대 회장 귀농인협회 최봉식회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이 귀농협회 회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회원간 단합과 봉사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가지면서 운명처럼 선택한 이곳 영양군지역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영양의 귀농귀촌인이 오로지 영양사람 영양군민으로 하나가 되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때면서,

또한, "앞으로 귀농협회는 회원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은 물론 도시민 유치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군 지방소멸대응 추진단 및 인구증가 정책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므로써 영양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로 영양부군수는 축사에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귀농협회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운을 댄 뒤, "향후 귀농협회가 영양군민의 한 일원으로써 영양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귀농협회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따라 많은 외지분들이 영양으로 오고 싶어 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한 선도적인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7대 영양군 귀농협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 후 사회자의 폐회를 끝으로 귀농협회 회장 취임식을 마쳤다.

취재진은 행사간 신임 제7대 최봉식 회장이 말한대로 가장 소중한 덕목이 영양군으로 귀농하였으면,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동화돼, 지역민과 호흡하고 지역사회의 군정이 펼쳐는 정책에 적극 호응해 줘야 한다는 말에 큰 공감을 느낄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은 귀농인들 중 일부 소수인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모습이 눈에 띄어 보기가 썩 아름답지 않았는데, 이번 취임하는 최회장의 취임사에서 향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소수 귀농인원들에 대해 과감하게 군정 업무에 협조하라는 경중의 목소리가 신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영양군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큰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근수/기자ygs1162@naver.com



<박준로 영양부군수 축사>



<제7대 귀농협회 임원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
YEONGYANG-GUN

길

절과 옛 마을을
헤엄쳐 오면...
의미 있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숲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추사대를
향유합니다.

빛

별이 쏟아지는
밤이 깊어갈수록
영양은 별이 빛나는
천국의 문이 됩니다.

심

자연과 벗을하며
가을이 깊어갈수록
영양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맛

사뽕나무이썩은
반가이썩은...
정겨운 영양의
맛을 만끽합니다.

엔

수제미와 대추
정향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영양에서 만나세요.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강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존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이생화전시관

전남도, 3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송재철 대표

고흥 유자·석류로 가공품 생산·체험행사 등 고부가가치 창출

전라남도는 3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고흥 특산품인 유자·석류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과 체험 및 실습농장을 운영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송재철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

송 대표는 '바른 먹거리 자연이 준 소중한 먹거리'라는 구호로 2007년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농가 계약재배를 하고, 직접 생산한 친환경 유자·석류를 연간 300톤 이상 활용해 음료류, 과자류, 화장품류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비누 만들기, 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2년 2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특히 독일, 미국 등 해외로도 판매를 확대해 5억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그 결과 송 대표는 2010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6차 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공헌 상장(노인 취업 선도적 역할) 등을 수상했다.

송 대표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체험 등을 통해 고흥 유자와 석류를 널리 알려 지역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송 대표는 지역 특산품인 유자와 석

류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는 융복합산업인"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부위원장,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지방정치부문' 대상 수상

안양시의회 음경택부위원장이 2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음위원은 안양시의회 유일한 3선 의원으로 동료의원들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한 정책개발에 앞장서는 등 의회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정치부문' 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음부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미래발전에 공헌

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발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함으로써,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신우용/기자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문정환 의원이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오늘(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 한국언론연합회가 주최하고, 선데이뉴스신문, 월간 선데이뉴스 등이 주관했다.

이 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확고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국가 브랜드 향상 등 미래발전에 공헌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정환 의원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바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앞으로도 문정환 의원



은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의 변명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상 수상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문정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저의 노력뿐만 아니

라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주시의 성장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대구시 '2023 팔공사야국악상' 수상자 선정

TC태창,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기부협약으로 메세나 '2023 팔공사야국악상' 제정 및 시상 시행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국악의 전승과 보전에 힘쓰는 국악예술인을 발굴하고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한 국악인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TC태창과 대구광역시의 후원으로 '2023 팔공사야국악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국악 분야의 진정한 예술인을 발굴해 그에 상응한 시상과 축제로 전통 문화예술의 가치와 소중함을 기리고자 '2023 팔공사야국악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3개 부문 5명으로 △사야 특별공로상 박종선(아쟁), △사야국악상 최영인(판소리), 윤호세(타악), △청춘사야국악상 김운우(대금), 박병재(대금)가 선정됐으며, 수상자는 4월 12일(수) 오후 6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시상식과 함께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2023 팔공사야국악상'은 2022년 12월 지역공연문화 진흥·발전을 위한 대구시·TC태창·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간 기부 약정협약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TC태창에서 오페라, 뮤지컬, 국악분야의 대상제정 및 시상식 등의 후원을 위해 연 5억 원씩 4년간(2023~2026) 총 20억 원을 지정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TC태창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2012년 사야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예술인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진흥원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2023 팔공사야국악상'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의 의의를 거쳐 국악의 발전과 전통문화 창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국악인 중, 국악분야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예술적 성과를 인정받은 훌륭한 국악인, 예술적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 국악인 등 총 3개 부문에 5명을 선정했다.

진흥원은 총상금 8,000만 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은 "지역 대표 기업 TC태창의 메세나 후원으로 팔공사야국악상 제정을 통해



향후 권위 있는 예술상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 후원을 통한 메세나 사업으로 대구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김재천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완주군의회 유의식, 김재천 의원이 23일 완주군의회에서 실시된 제273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공으로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과 김재천 의원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해 23일

월례회의에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이기동 회장이 해당 의원에게 직접 상패를 전달했다.

유의식 의원은 "의정활동을 행정에 대한 지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와 군민들과 소통하고,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완주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재천 의원은 "지역에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찾아다니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초석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의식 의원과 김재천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지역발전을 관심을 갖고 민원해결 및 대안제시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기자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북에서「제89회 총회」개최

교육비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 등 8건 심의·의결

- 현 상황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대책 논의

- 시도지사에서 추진하는 시도제 진출률 인하에 반대 입장 명확히 밝혀

항목	내용
시·도 공통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
시·도 자율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준비금, 졸업앨범비, 생활복비 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목),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총회를 개최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안건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건의 및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요구, ▲ 학교용지 매입 시 이자가산 제도 개선 요구 및 교육비 지원시기 조정 요청, ▲ 유보통합 추진 개선대책 마련 건의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요구에 대한 안건, ▲ 「교육의제 토의」 실시 안건이었다.

이에따라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 및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요구안건이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는 매년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등의 선발 확대를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3년부터 적용이 종료되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을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요구하고, 고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용도를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 및 학령기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활동 지원 분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여 장애인 교원 채용을 확대하

고 장애학생의 직업역량 증진과 취업을 활성화하며, 장애학생 보호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요구'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병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같은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병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설형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병설형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학교용지 매입 시 이자가산제도 개선 요구 및 교육비 지원시기 조정 요청이다.

먼저 학교용지 매입시 이자가산제도 개선 요구(1995년 이전 개발된 학교용지)로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용지를 확보한 경우 공공기관 등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면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립학교가 설립·이전할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확보한 학교 용지 매입 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을 근거로 택지개발시행사에서 사업준공 2년 이후부터 민법상 이자(5%)를 가산하고 있어 학교 용지 매입 시 다투어 발생하고 이자가산에 따른 용지 매입 비용이 증가하여

학교 설립(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매입비용 증가 등에 따른 설립(이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매입 시 택지개발사업 준공 2년 이후부터라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비 지원 시기 조정 요청으로 아래 도표와같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학기가 진행 중인 5월에 완료돼, 학기 초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교육비의 적기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하여 교육비 지원 시기를 조정하여 학생 교육비 지원이 학기 초(3월)부터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지원 시기 조정에 따라 학적이 없는 초등학교 신입생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 접속 기능 개선 및 행정적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유보통합 추진 개선대책 마련 건의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요구안건이다.

먼저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건의는 교육부·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23. 1. 30.)과 유보통합 관계 회의 개최('23.2.17.)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 발표 시 구

체적인 로드맵이나 행·재정적 지원내용이 없어, 정책 추진 중 교육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재정·인력 운용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정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국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과 추가 정원 배정이 담긴 운영 특례 발굴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다음으로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요구로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 특근매식비와 학생과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매식비가 2018년 이후 계속 동결('18년 특근매식비단가 책정 이후 외식물가지수는 주요 외식품목 기준 평균 20.42% 상승)돼, 양질의 식사가 어렵고, 학생 현장체험학습 시 정상적인 매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질의 식사와 현장체험학습 등 원활한 학생교육활동을 위해 현실 물가상승률(20.42%)을 반영한 1인 1식 단가를 10,000원으로 인상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개정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 실시 안건이다.

교육부에서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의 개선 요구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안 및 경중, 그리

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성교육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안)」에 담긴 시도제 진출률 인하(현행의 1/2 수준)와 하향선 설정 및 조례 제정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성취평가제 도입은 고교교육과정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22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집단(임금)교섭 추진 경과를 보고받으며,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조희연교육감은 "현재 교육계의 현안인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유보통합, 국 단위 학생 평가 운영 안정성 확보, 고교 성취평가제 등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수 감소를 필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표해, "시도제 진입금의 절반 추고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발표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

된 8개의 안건은 그동안 오랜기간 개정돼 오지 못한 것들과 잘못된 제도를 과감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는 구조적 한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장애인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직업역량 증진과 취업을 활성화하며, 장애학생 보호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 아닐 수 없다.

또, 최근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해,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피해자 보호 최우선, 사안 및 경중, 그리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성교육과 병행 추진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제안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향후, 이와같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교육의 문제점들이 완전 개선돼,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인 우리나라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이념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 구현되어 질 수 있기를 주문해 본다.

한편, 다음 제90회 총회는 2023년 5월 18일(목)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ygs116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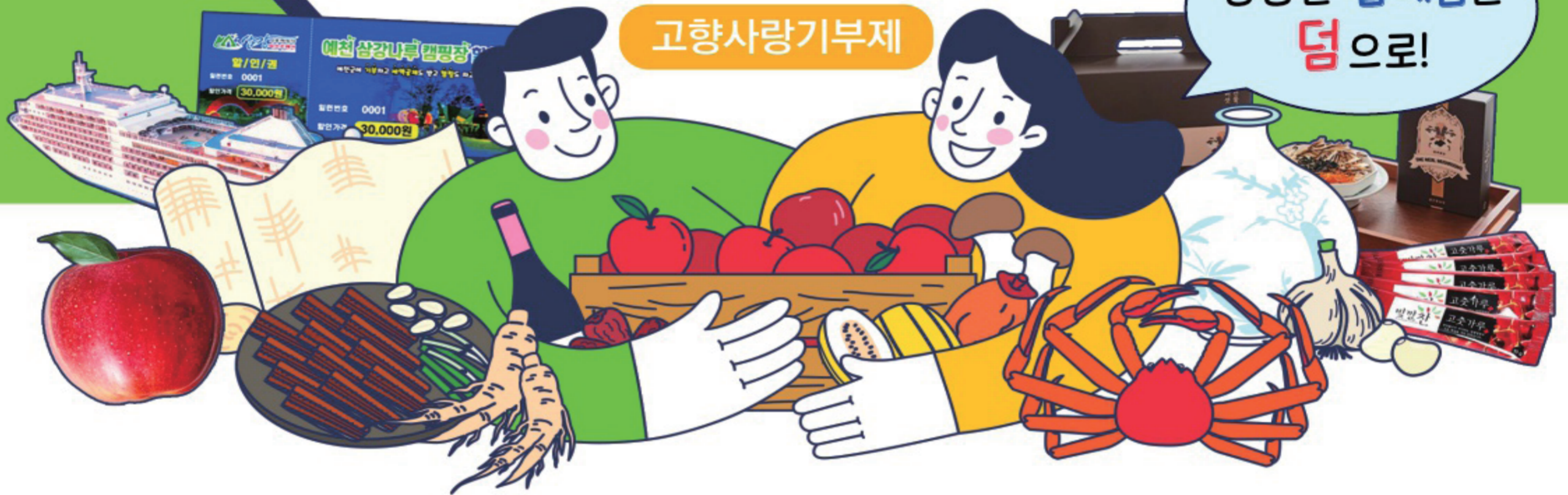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풍성한 답례품은 덤으로!

-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 기부혜택**
 -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

가입	기부하기	위택스 결제	답례품 선택
준비물 PC, 휴대폰		계좌이체 또는 카드	

※ 위택스 사전가입 필수

기부방법 ②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답례품 선택
준비물 신분증		계좌이체 또는 현금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문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 054-880-2836, 2838